

“후회 없는 인생”

약 4:11-17

음식 애호가들의 나라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 받는 식당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미술랭 가이드로부터 ‘별 3 개’ 평가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프랑스 전체를 통틀어서 25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이 ‘코트도르’ 식당입니다. 그 레스토랑의 주인은 수십년 동안 완벽한 식당을 만들어 최고의 평가를 받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1년에 별 2개의 평가를 받은 후, 1991년에 마침내 별 3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꿈을 팔고 있고, 우리는 행복을 파는 상인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봄에 그는 결국 아무 유서도 남기지 않고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살이유에 대해 다른 식당 가이드가 그의 식당 평점을 19점에서 17점으로 낮춘 것이 동기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 같다가도 실패하기도 하며, 반대로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이 재기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라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15-16 절에는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적인 즐거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는 즐거움의 극치를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모두 손에 넣어야 하는 재산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려는 끝없는 야망, 즉 명예의 극치 입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재산과 명예를 한쪽 저울에 놓으시고, 다른 한쪽에는 한 영혼을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더 귀한지 예수님께 물어 보시면, 막 8:36-37 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 영혼이 온천하의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야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됩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진정 참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참된 가치를 향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 비판하지 말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너무 부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들여다 봐도 자기 생각과 틀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비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약 4:11)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마다 신앙성장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신앙은 동일하지만 그 적용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지만 오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몇 배를 해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 7:1-2)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비판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마다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린 각자의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3.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라

초대교회시대는 지중해 연안은 무역과 상업의 통로로 이곳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하여, 배를 타고 다른 도시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통해 일확천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허황한 꿈을 가지고 일확천금 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시 103:15)고 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온전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허무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뿐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고생하며 돈을 모으다가 멋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돈 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런 생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도서 6:12)”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이나 출세나 명예나 권력 등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주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이로부터 우리는 인생의 존재 목적, 이유 그리고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 즉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니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18 세기 초 영국의 수필가이자 시인이었던 조셉 에디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며, 셋째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걸고 하여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된 ‘가치관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소원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비판’과 ‘믿음 안에서 사랑의 권면’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4. 내 인생에 (돈과 명예와 건강보다)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단했거나 행한 행동들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이며, 당신이 (주 안에서) 평생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